

# KIA 광도규 “맞으면서 크다”

호랑이 마운드 ‘키맨’ 복귀  
“흠런 맞더라도 공격적인 피칭  
스트라이크 꾸준히 공략할 것”



“흠런도 맞고 배우면서 성장하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고졸 2년 차 좌완 광도규에게 실패는 없다. 마음과 다른 결과에 속을 태우는 날도 있지만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온 지난 6일 롯데전에서 광도규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성장했다. 올 시즌 KIA 마운드의 ‘키맨’으로 활약해 온 광도규는 5월 2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팀이 1위 질주를 이어가면서 부담 많은 상황에서의 등판도 많았던 만큼 이범호 감독은 광도규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6일 다시 엔트리에 등록된 광도규는 바로 경기에 투입됐다.

3-3으로 맞선 8회 1사에서 마운드에 오른 광도규는 첫 상대 고승민을 7구 승부 끝에 3루 땅볼로 잡아냈다. 하지만 광도규는 2사에서 펼쳐진 손호영과의 승부에서 흠런을 허용했다. 파울 2개로 투스트라이크의 유리한 볼카운트를 가져갔지만 연달아 불이 들어왔고, 5구째 던진 142km 투심이 중앙 담장을 넘어가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광도규는 이어 레이예스에도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나승엽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8회말 타자들이 광도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김도훈이 좌월 솔로포로 승부를 4-4 원점으로 돌렸고, 나성범의 2루타에 이어 김선빈이 적시타를 날리면서 5-4를 만들었다. 9회초 정해영이 등판해

렸는데 몸 상태는 좋아진 것 같다. 확실히 팔이랑 가벼워졌고 좋다”며 “흠런 맞은 것도 힘이 떨어지거나 구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불배합의 문제였다. 치라고 던져준 것이라 생각한다. 팀이 이겼으니가 폐가 아니라 좋은 배움으로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찬호의 이야기도 광도규에게 힘이 됐다. 박찬호는 이날 경기 전 어린 투수들과 미팅을 갖고 자신감 있는 승부를 강조했다. 광도규는 “경기 전에 찬호 형이 어린 선수들을 모아서 기운 내라고 한마디 해주셨다. ‘흠런 맞아도 된다’, ‘투스트라이크 잡고 흠런 맞아도 아쉬운 게 아니고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주셨다. ‘주축이 됐을 때 더 자신 있게 흠런 맞더라도 기세 좋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흠런을 맞기는 했다. 그래도 좋을 말을 해주신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멋진 흠런도 쳐주셨다”며 “팀이 도와주는 것을 느꼈다. 꾸준히 하면 팀이 이긴 날이 더 많을 것이다. 하던 대로 똑같이 하겠다. 흠런도 맞고, 꾸준히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하면 확률적으로 투수가 이기니까 하던 대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도규에게 힘을 더해준 박찬호는 “아수들도 투수들도 1등 하면서 너무 쫓겼다. 주제 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후배들에게 ‘투스트라이크에 맞나, 원 스트라이크에 맞나 여차피 맞는 건 같다. 의미 없는 변화구, 유인구 던지려고 하지 말라. 타자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했다”며 “존에 살짝 1-2개 빠지는 게 위협적이지, 벗어나는 공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타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우리 어린 후배들이 버리는 공이 많아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6일 승리투수가 됐던 광도규는 8일에 이어 9일 두산전에서 2개의 탈삼진을 더하는 등 끝까지 피칭을 이어가면서 팀의 연패 탈출에 힘을 보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연경의 국가대표 은퇴 경기에서 김연경이 팀의 득점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굿바이! 김연경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전 열려...페퍼스 박은서 등 초청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데뷔 19년 만에 태극마크를 내려줬다. 지난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김연경의 국가대표 은퇴전인 'KYK Invitational 2024 국가대표 은퇴경기'가 치러졌다. 이날 경기에는 페퍼스의 아웃사이드히터 박은서, 미들블로커 하혜진, 아웃사이드히터 채선아를 비롯한 전·현직 정상급 여자 배구 선수들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김연경과 양효진(현대건설)이 각각 '팀 대한민국'과 양효진의 '팀 코리아'의 주장을 맡아 대결을 벌였다. 김연경은 이날 경기에서 13득점을 하며 팀 코리아의 70-60 승리를 이끌었다. '팀 코리아' 팀원으로 참가한 채선아는 “언니들의 노고를 인정받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

어 큰 영광이었다”며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어 더 좋았고, 언니들이 잘 뛰어놓은 길이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할 것”이라며 김연경과 함께 은퇴식을 가진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5년 국가대표로 데뷔한 김연경은 2012 런던 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서 두 번의 4강 신화를 이끌며 한국 배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앞서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을 마친 뒤 은퇴를 선언했던 김연경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 차례 은퇴식을 미룬 바 있다. 한편 9일에는 나탈리아 페레이라(브라질)·마켓 그로스(네덜란드) 등 김연경과 추억을 쌓은 세계적인 선수 10명과 V-리그 선수 12명이 함께 하는 '세계 여자배구 올스타전'이 진행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과 이강인이 8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픈 트레이닝에서 훈련 중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럽파에 새 얼굴까지... ‘골 잔치’ 펼쳐라

내일 서울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C조 6차전 중국전

‘상암벌 만원 관중 앞에서, 다시 한번 골 잔치를 펼쳐라!’ 김도훈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마지막 6차전을 치른다. 싱가포르 원정으로 치른 5차전에서 시원하게 7-0 대승을 거두며 C조 1위와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은 가벼운 마음으로 중국전을 대비한다. ‘유럽파 공격수 3인방’ 손흥민(2골·토트넘), 이강인(2골·파리 생제르맹), 황희찬(1골·울버햄프턴)이 제 몫을 다한 가운데 ‘새 얼굴’들이 만전 활약을 펼쳐줬기에 더 기분 좋았던 싱가포르전 승리였다. 지난 3월 태국과의 3·4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에 처음 뽑힌 스트라이커 주민규(울산)는 싱가포르전에서 A매치 데뷔골과 도움 3개를 무더기로 신고하며 베테랑의 존재감을 제대로 과시했다.

막판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스톡 시티에서 만점 활약을 펼치고 돌아온 2선의 배준호가 교체 투입 9분 만에 골 맛을 봤다. A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폭발한 것이다. 정확한 킥백으로 배준호의 골을 도운 박승욱(김천) 역시 데뷔전에서 생애 첫 A매치 도움을 올렸다. 주민규, 배준호 등의 활약으로 최전방, 2선의 주전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내부 경쟁이 경기력 향상을 불러오고, 승리가 선수들에게 더 강한 승리욕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3차 예선을 앞두고 더욱 단단해졌다.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이 다시 한번 상암벌을 누빌 전망이다. 셋 다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호와 주민규가 2경기 연속으로 공격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특히, 스트라이커인 오세훈(마치다)이 왼쪽 허벅지에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주민규가 2경기 연속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차 예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 편성을 받기 위해서 중국전 승리는 필수다. 3차 예선이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가운데,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3위권을 유지해야 일본(18위), 이란(20위)과 같은 조로 묶이는 걸 피할 수 있다. 현재 한국(1563.99점)은 랭킹 포인트에서 아시아 4순위인 호주(24위·1563.93점)에 0.06점 앞서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하다. 승점 8(골 득실 +1)로 C조 2위인 중국은 이번 최종전 결과에 따라 3위(승점 5·골 득실 -2) 태국에 역전당하며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사력을 다할 거로 보인다. 중국과 태국의 운명이 골 득실에서 갈릴 수도 있다. 물론 한국은 공격진이 상암벌에서 다득점을 올릴수록 중국이 탈락할 가능성은 커진다. /연합뉴스

## 페퍼스 새 식구 이원정 “봄 배구 목표로 달리겠다”

여자프로배구 페퍼스측은 A페퍼스의 새로운 센터 이원정(사진)이 ‘봄배구’를 목표로 달린다. 페퍼스는 지난 3일 흥국생명과 트레이드를 통해 이원정을 영입하고 2025-2026시즌 1라운드 신인지명권을 얻었다. 대신 이고은과 2025-2026시즌 2라운드 신인지명권을 내줬다. 이원정은 지난 2017-2018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을 거쳤다. 이원정은 “페퍼스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팀에 오게 됐다고 생각한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여기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가 페퍼스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봄배구’다. 이원정은 “아직 페퍼스가 봄배구를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봄배구를 한번 가보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정은 그간 밖에서 본 페퍼스에 대해 “양쪽 윙이 좋기 때문에 한번 타지던 무서운 팀이다. 흥국생명에서 봤을 때는 한번 분위기를 타면 되게 끈끈하게 땀이 분유기가 짝 올라가는 팀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도 잘 하면 좋



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전했다. 다가올 시즌 흥국생명과 맞대결에 대해서 그는 “무엇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다. 흥국생명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경기장에서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흥국생명에서 (김)연경 언니와 호흡을 맞추며 정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볼을 올려야지 공격수들이 잘 때리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함께 했던 박정아에 대한 반가움도 전한 이원정은 “당시에 내가 어떻게 볼을 올려도 언니는 잘 때려줬다”며 “(박)정아 언니랑 한 방을 같이 썼었다. 그때 언니가 되게 잘 지켜주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팀의 ‘높이’를 강화한 페퍼스는 오는 2024-2025시즌 이원정과 박사랑이 센터 역할을 양분해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페퍼스, 이예림 영입 ‘수비 강화’

페퍼스측은 A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유신선수로 공시된 이예림(사진)을 영입했다. 이예림은 1998년생으로, 2015-2016시즌 V-리그 2라운드 3순위로 현대건설에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했다. 이후 대구시청과 수원시청 실업팀을 거친 이예림은 2021-2022시즌부터 도로공사에서 활약했다. 지난 시즌에는 개인 최다인 103득점과 36.6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예림은 “페퍼스에서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수있어 기쁘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소연 페퍼스 감독은 “이번 영입으로 올 시즌 수비와 팀의 템스를 보강했다”며 “이예림이 팀에 잘 적응해 중간 보여줬던 안정된 플레이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